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어느 날의 꿈

무진에 이어 만화까지 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 무욕도는 그들이 한 사람의 없어질 때마다 마치 열사람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적막함에 휩쓸려서 그곳의 과도소리조차도 귀가 멍멍해지는 하나의 적막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사람 하나가 없어진 자리가 그토록 큰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을 연거꾸 두번이나 당한 심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를 사이라도 마음 같이 공중(空洞)이 생겨서 헛소리 입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

굳이 이런 경우를 이 세상의 인연을 다한 도반(道伴)에 대한 추모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특히 만화와의 오랜 삶을 함께한 남작은 솟대 먹는 일도 거르기 일수였고 방산의 한동안이나 작부(作物)의 노동을 쉬는 한 동안을 놔둘 놓아버리고 눈의 흰 침만으로 말려버리는 일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유년로부터 천상에 태어난 만화의 얘기를 들은 뒤 "우리 선장이 그런 곳에 태어날 까닭이 없지! 태어난다면 이 바다와 어디에 태어날 것이지!"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배를 타던 시절로 돌아가서 선장이라는 호칭으로 만화를 부르기를 서슴치 않았다.

인담이 그런 남작을 섬 폭재기 몸집으로 데려가서 꼭 쥐게 하였다. 그에게 참선하라, 팔자를 해다가 풀아주어라라는 일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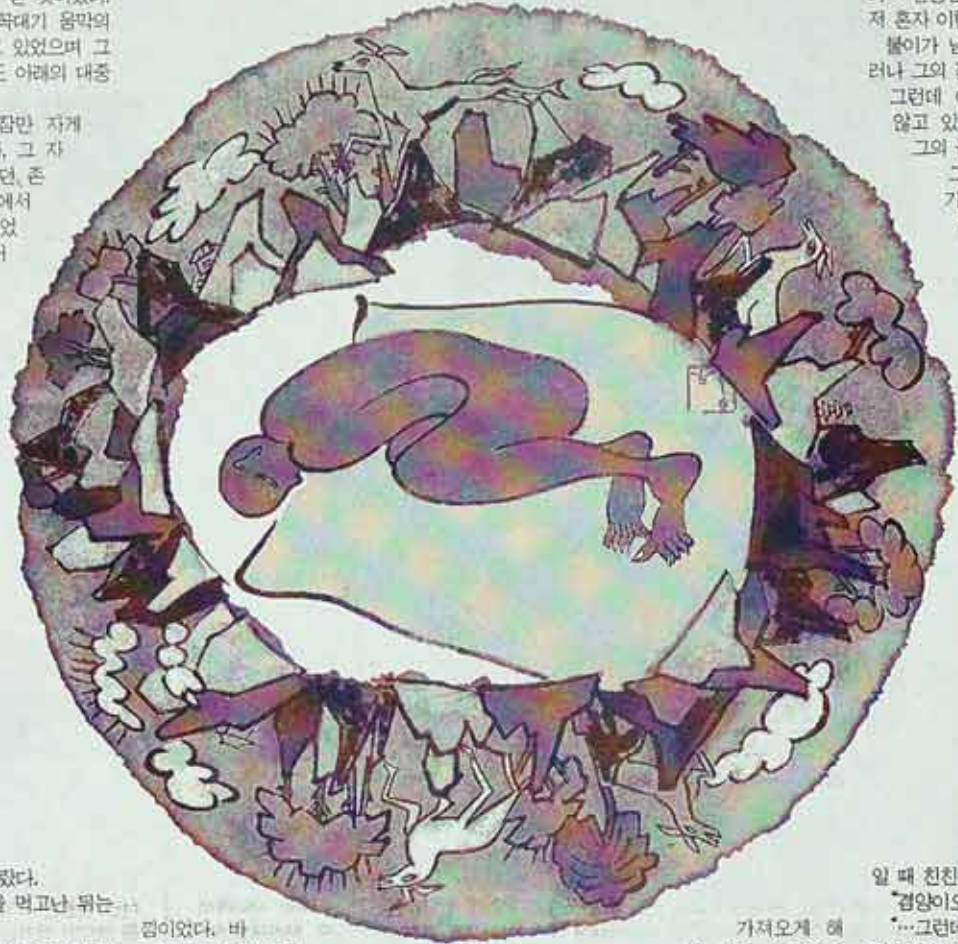
버려라 하십니까?"

그러자 조주가 말하기를 "그러면 다시 가지고 가거라"라고 하였다.

이 앞에 엄안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을 가지고 간 것인지가 이 방 하직의 화두는 더이상 계속하지 않고 일과 뒤를 동방 생략해 버리고 말았다.

이런 화두의 세계에 남작을 등다는 것은 인담으로서가 그것이 방하(放下)인지 방치(放置)인지 모를 노릇이기도 한 것이었다. 아무튼 며칠동안 인담은 산꼭대기 음악의 일을 일부러라도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그 음악에서도 남작은 어떤 일도 아래의 대중 처소에 알려지지 않았다.

남작으로서의 오랜만에 잠만 자게 되었다. 그가 의존하던 만화, 그 자신이 때로는 벗어나고 싶었던, 존 재가 머물처럼 분명한 세상에서 영영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부재(不在)가 도리어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서 남작 자신의 심상(心象)을 지구 건드리는 만화, 한마디로 그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그로부터 공짜답잖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실감시키는 만화에 대한 슬픔과 희망의 결과가 이런 몽롱한 잠



잠든 남작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옛 당나라의 같고 북소리였다가 차츰 그 자신이 치던 북소리까지 겹쳐서 환청(幻聽)으로 들리는 것이었다.

이가 발을 떼어놓지 않고 서 있었다. 그 북소리의 착각에서 벗어난 뒤 남작의 담담한 잠꼬대를 들을 수 있었다.

"만화님! ...아니 선장님... 선장님이 천상에 태어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풀이 아니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말인지 아닌지 제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선장님... 이제야 저는 선장님을 떠나져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이가 남작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잠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잠꼬대가 더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가 남작의 입은 다물어지고 그의 눈이 슬그머니 떠졌다.

그때에 불이는 어떤 공포감과 기이한 황홀경이 뒤섞인 상태로 부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작!" 하고 그가 나직하게 불렀다.

"아 제가 꿈을 꾸고 있었 습니다. 아주 긴 꿈을..."

"이제 만화님을 떠나 보낸 슬픔에서 좀 놓여나 쓰는지?"

"내 슬픔이야 어디 그 게 슬픔이었습니까, 그저 어린 아이가 예미가 안보

님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경년 꿈이란 현실의 여러 장을 벗어나 자유자재이니까요."

"이렇게 깨어난 생사(生時)가 도리어 심심합니다. 꿈 속에서는 천상과 이 지상의 저 같은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남작! 이제 아래로 내려갈까요?"

"저를 데리러 오셨다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더 잠들어 있고 싶습니다. 잠 들어서 꿈 속에 노니는 것이 저에게는 수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사의 수행은 영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 결가부좌는 승강 옆에서 꼭꼭 뒹어져있는 줄이고 저에게 반가부좌는 어겨지도 믿든 맹초종의 허탈 없는 놀이입니다!"

"..."

"저는 제 멋대로 놓아두어야 그대로 풀을 뜯어먹는 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푸줏간에 한 덩어리씩 메달려 있는 쇠고기여 지나지 않습니다."

실로 불이는 남작의 이같은 발언들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언제 이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영롱하기까지 한 말을 술술 입안에서 나오게 하는 것인가 모를 일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언(眞言)의 부도(浮屠)가 아니던가!" 라고 불이는 마음 속에서 되뇌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뇌까리는 속마음의 말까지 다 읽어내고 있는 남작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진언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깨어난 생사가 도리어 심심합니다. 꿈속에서는 천상과 이 지상의 저같은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꿈속에 노니는 것이 저에겐 수행인 것 같습니다"

남작은 오랫동안 잠만 자게 되었다. 만화에 대한 슬픔과 희망의 결과가 몽롱한 잠의 세계로 바뀐 것 인지도 몰랐다. 남작의 잠은 예상로운 것이 아닌 깊은 잠이었다.

역할을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밥도 울며먹고 해먹도록 한 것이다.

인담으로서의 아직 이 섬에서 케보지 않은 방하(放下)를 그동안 만화에 의존해서 살아온 남작에게 적용함으로써 그의 깊은 상상을 치료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하학이 누구에게나 딱 들어맞는 치료법이 아니었다.

한 생각을 내려 놓는다는 것, 한 생각을 그만 잊어버린다는 것, 한 생각을 꼭 쥘다는 것의 경지가 아직 남작의 직정(直情)에 잘 어울리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그런 남작이 바로 조주(趙州)와 대결한 엄양(嚴陽)은 아니었다.

엄양이 조주에게 가서 물어대며 말하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는 주저없이 "방하학 하라"라고 말하였다.

엄양이 다시 대들어 말하기를 "여태껏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아

의 세계로 바뀐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하루에 한 끼의 밥을 먹고난 뒤는 그렇게 잠만 자는 것이었다.

산꼭대기 음악의 이런 상화에 대해서 저 아래의 정사(精舍)에서도 차츰 궁금증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승(詩僧)이기도 한 불이가 슬쩍 산꼭대기의 숲길로 올라와 남작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동정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동정 살피는 조심스러움의 필요 없을만큼 남작의 잠은 예상로운 것이 아닌 깊은 잠이었다. 잠부른 잠장들이나 활짝들이 나타나서 그를 들고 가더라도 깨어날 줄 모르는 잠이었던 것이다.

불이가 문득 괴이하게 여겨져서 흑시 숲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하고 가까이 다가갔다. 숲소리가 길고 컸다.

모든 과도소리를 차단해주는 해송의 숲으로 에워싸인 그곳 음악은 차라리 어떤 사람의 자취도 없었던 것 같은 하나의 비경(秘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느

림이었다. 바람도 설기습의 바닷바람과 달리 맑고 한 기운이 끼치는 그런 색다른 것이었다.

불이의 물안에 소름이 돋는 것과 함께 찬 바람 한 자락이 그를 휘익 감아줄 때 그는 마치 당나라 현종(玄宗)이 치던 것과 북소리(靑鼓)가 동동동 들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사뭇 주위를 둘러다 보며 놀랐다.

당나라 현종시대는 서방 변경의 갈족(葛族)이 치는 북까지 황성 안으로 들여다가 잔치에 썼다. 현종의 종류 가운데서 이 갈고 치는 솔씨도 이름이 나 있었다.

어느날 새로 작곡한 관현악을 연주하였는데 그 곡이 현종에게는 몹시 잘못된 것이어서 즉각 중지시키고 그 자신이 갈고를

가져오게 해서 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불이님이 언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아래에서는 대중이 다 남작을 경경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나는 이 무욕도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본디 뱃사람의 거친 말투는 어느덧 이곳의 승려생활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각 가라앉은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보니 포구에 발을 디딜 때마다 백주가에서 발을 새우던 그 황량한 나뭇(洞窟)과 울렁(울렁) 따위의 지난 날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뜻이 아주 청정한 수행자의 몸이 되어 있었다.

그가 불지도 않는 말을 이어갔다. 오래 동안 누워있던 자세에서 그가 일어선다는 일이 조금 어색하였다.

"저는 꿈 속에서 천상에 태어난 만화소

나라 오래된 해골바가지가 내는 빈 소리입니다."

불이는 다시 한번 남작이 이제까지의 남작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하였다.

"?"

그는 남작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해보았다. 만화가 세상을 떠난 뒤의 깊은 상심이 이런 경지를 만들어 주었다면 과연 그 상심의 뜻도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남작스님!" 이라고 꾸짖듯, 경청으로 불러서 그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숲길을 내려가는 일이 불이에게 남은 일이었다.

그는 더이상 남작을 다룰 처지가 아니었다.

우녀에게 맡겨보아야 한다. 인담에게 맡겨보아야 한다. 아니 무욕도에 남아있는 과연 수월 합두 등에게도 맡겨 보아야 남작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기운은 바로 남작의 몸에 청청 감겨있는 것이었다.

성야출판 TEL: 778-8826-7 FAX: 778-8828

##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2장경

##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부다에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호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2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과 함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이 떠나시니 내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부다에서 피소 작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다면, 그대는 깨달음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에 놓여있다.

그러니 등기를 내려, 아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아무 디로 전하(Anno nepe shw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들,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부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놓고 있는 어린아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실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가 버리고만 있다. 그대는 큰나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말치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온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 부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시종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장소에 그대가 재물을 일한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놀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부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부다의 가르침을 모아 42장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서 읽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부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식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무척을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소 라츠나워 감리 / 황광우 · 이경복 옮김  
신국문 · 현2권 · 각권 7,500원